

전주시-폴란드 제슈프시, 경제 협력 ‘맞손’

항공우주·탄소복합재 등 미래 첨단산업 육성·경제발전 협력 강화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 체결

전주시가 항공우주산업과 탄소복합재, 친환경 에너지 분야 등 미래 첨단산업 육성과 경제발전을 위해 폴란드 제슈프시와 손을 맞잡았다.

시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10일 폴란드 제슈프시청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콘라드 피요엡(Conrad Fijołek) 제슈프시장을 비롯한 양 도시 주요 관계자 및 내외 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 경제발전 협력 강화를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는 양 도시가 상호 신뢰와 이익에 기반한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경제 분야에서 폭넓은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됐다.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항공우주산업, 탄소복합재 산업 등 전략 산업 분야에서의 기업 간 교류 활성화 △산업단지 방문과 기업 간담회 개최를 통한 실질적인 경제협력 모색 △연구기관, 대학, 교육기관, 협회 등과의 교류 촉진 등이다.

특히 양 도시는 협력 활동을 통해 상호 경제발전과 지속 가능한 산업 생



전주시는 폴란드 제슈프시청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콘라드 피요엡(Conrad Fijołek) 제슈프시장을 비롯한 양 도시 주요 관계자 및 내외 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 경제발전 협력 강화를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태계 구축에 힘쓰기로 뜻을 모았다.

이와 함께 우 시장을 비롯한 전주시와 제슈프시는 MOU 체결 직후에는 양국 기업인과 관계자가 참여하는 기업 간 간담회를 열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과 투자, 기술 교류 등 실질적 협력 가능성을 논의하기도 했다.

산업 협력 가능성을 심층 탐색하기도 했다.

이번 기업 방문은 지난 1월 전주시 탄소기업인 ㈜비너데와 독일 항공기 엔진 제조 분야의 선도기업인 MTU 에어로엔진스 간 항공기용 수소연료 전지 시스템 개발을 위한 막연극집합체(MEA) 공급 계약 체결의 연장선으로, 시가 항공우주 및 친환경 에너지 분야 등 첨단 미래산업에서 지역 기업의 해외 진출과 국제 협력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제슈프시와 긴밀한 협력 채널을 유지하며, 민간기업과 연구기관 간 실질적인 협력 성과 창출을 위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번 MOU는 양 도시가 신뢰와 연대를 바탕으로 새로운 협력의 장을 여는 뜻깊은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폴란드 제슈프시와 물리적 거리를 넘어 혁신과 번영을 함께 이끌어갈 든든한 동반자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동노동자 안전한 여름나기 응원

전주시, 맞춤형 상담·안전 캠페인·간식 지원

전주시가 혹서기를 앞두고 이동노동자들을 찾아가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나기를 응원했다.

시는 11일 완산구 이동노동자 쉼터에서 정복근로자건강센터, 전주 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전주 시지원봉사센터 등과 함께 이동노동자를 대상으로 1:1 맞춤 상담(건강, 노동 등)과 안전 캠페인, 간식 지원을 진행했다.

이날 시는 여름철 건강 예방을 위한 혈압·혈당 체크 등 기본 검진을 실시하고, 팔토시와 얼굴스카프, 비옷 등 여름철 보호장구 착용을 통해 안전한 노동환경 속에서 일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인식 개선에 힘썼다.

또한 시가 추진 중인 ‘전주 함께 장터 프로젝트’ 일환으로 지역 소상공인 선결제를 통해 이동노동자들에게 시원한 음료와 샌드위치 등 간식을 나누는 행사도 함께 진행



했다.

이와 관련 시는 이동노동자에게 안전한 노동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완산구(효자동)와 덕진구(송천동)에 ‘전주시 이동노동자 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맞춤형 상담의 날’과 직무교육, 안전 캠페인 등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한 배달노동자는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 야외 노동이 어려워지는 시점에 이동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일본드론축구연맹 대표단, 중주도시 전주 찾아

드론축구월드컵 개최지 방문
사건 답사·시스템 벤치마킹

일본드론축구연맹 대표단이 한일 간 드론축구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고 한국의 드론축구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드론축구 중주도시이자 2025 드론축구월드컵 개최도시인 전주를 찾았다.

전주시는 나카자키 히로유키(NAKAZAKI HIROYUKI) 회장을 비롯한 일본드론축구연맹(Japan DroneSoccer Federation) 대표단 3명이 지난 10일부터 3박 4일의 일정으로 드론축구 중주도시이자 월드컵 개최도시 전주를 방문했다고 11일 밝혔다.



일본드론축구연맹 대표단이 한일 간 드론축구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고 한국의 드론축구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드론축구 중주도시이자 2025 드론축구월드컵 개최도시인 전주를 찾았다.

이번 방문은 한일 양국 간 드론축구 분야 국제교류와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오는 9월 전주에서 개최되는 ‘제1회 드론축구월드컵’ 준비를 위한 사전 답사 및 한국의 드론축구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이뤄졌다.

일본드론축구연맹 대표단은 이번 전주 방문에서 전주시와 국제드론축구연맹, 대한드론축구협회 등과 함께 전주월드컵경기장 내 건립 중인 세계 유일의 드론축구 전용구장인 ‘드론스포츠클럽센터’의 건축 현장을 점검하고, 지난해 8개 프로그래밍과 함께 출범한 드론축구 세미프로리그의 운영 시스템 등을 집중적으로 관람할 예정이다.

또한 일본 선수단의 전주 방문에 대비해 드론축구월드컵 기간 중 진행될 관광 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방안에 대한 협의와 사전 답사도 함께 진행된다.

/권희성 기자

전주한옥마을 어진포럼, 6월 관광안내서비스 제공

전주한옥마을 어진포럼(회장 양우민)은 6월 한옥마을 중심가에서 한옥마을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위한 관광안내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갈수록 늘어나는 내·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해 주말 동안 외국어가 가능한 도내 대학생들을 채용해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한옥마을 관광지를 소개하는 등 전주한옥마을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위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봉사활동은 6월 한달간 매주 토요일·일요일 총 8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관광도우미 인건비 등 행사비용은 어진포럼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아 마련했다.

한편 한옥마을 어진포럼은 전주한옥마을 일대 사업주들이 마을의 지속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14년 출범한 단체로, 매년 여름 혹서기에 더위에 지친 관광객들을 위해 무료로 생수를 나눠주는 행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

임청진 한옥마을소장은 “한옥마을 어진포럼은 그동안 전주한옥마을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위하여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통하여 전주의 이미지를 높이고 다시 찾고 싶은 한옥마을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겠다”며 “이번 봉사활동을 통하여 전주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에서 전주의 이미지를 높이는데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덕진구, 영양 가득 행복 반찬 나눔행사 펼쳐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심규문)는 11일, 덕진구 사랑의울타리 봉사단 주관으로 회원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영양 가득 행복 반찬 나눔 행사를 펼쳤다.

덕진구 사랑의울타리 봉사단은 초여름을 앞두고 외부 활동이 적은 소외계층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부모님과 가족이 드신다는 생각으로 돼지고기, 열갈이김치, 어묵볶음 등을

정성껏 만들어 전달했다.

유찬 덕진구 사랑의울타리 봉사단 회장은 “경기참체와 물가상승으로 취약계층이 특히나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의 작은 정성으로 어려운 이웃들이 건강하고 따뜻한 가족의 정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며 “더불어 행복한 전주가 될 수 있도록 뜨거운 열정으로 봉사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현장 점검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위원장 전운미)는 11일 시민의 여가활동과 건강 증진을 위한 주요 생활체육시설 현장을 방문해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전운미 위원장 등 문화경제위

원회 소속 의원들이 방문한 곳은 전주 덕진수영장과 완산수영장, 라온체육센터 등 권역별 수영장이다.

의원들은 각 수영장의 운영 인력 및 이용객 현황, 프로그램 운영, 편의시설, 수질관리, 안전 실태 등 다양한 요



소를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전운미 위원장은 “생활체육시설은 시민 건강을 책임지는 가장 기초적인 인프라”라며 “운영 효율성은 물론 안전성과 이용 편의성까지 고려한 정책적 지원은 물론 공공 체육시설의 지어진 불균형 해소와 접근성 개선을 위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전인자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반하의 논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들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선화당

관공각

내아